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김혜나 개인전



White Atmosphere

Kim Hye Na

2015. 11. 19 (Thu) - 12. 17 (Thu)

KIMREEAA GALLERY
space majoongmool

김혜나 개인전

장소: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번지 김리아갤러리 1 층

전화번호: 02-517-1513

Facebook: www.facebook.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com

문의: 최경민 큐레이터/ 010 9666 1513/ ky_min58@naver.com

Title : White Atmosphere

Artist : 김 혜 나 (Kim, Hye Na)

Date & Venue :

2015 년 11 월 19 일 - 12 월 17 일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번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오후 7 시)/ 토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일요일 휴관

Opening : 2015 년 11 월 19 일 6:00PM, 김리아 갤러리 청담점

Inquiry : www.kimreeaa.com, T. 517-7713

김리아갤러리에서 연간 개최되는 마중물 아트마켓 2014 를 통해 선정된 김혜나 작가의 개인전이 2015 년 11 월 19 일부터 12 월 17 일까지 김리아갤러리 청담에서 개최된다. 김혜나 작가는 White Atmosphere (하얀 대기)란 주제로 작업해온 페인팅 작품 약 20 점 및 판화, 누드드로잉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혜나 작가는 오랫동안 매일 시간을 내어 동네 뒷동산을 올랐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 아래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한의 변화가 있고, 그 조합들이 매 순간 미묘하게 다른 자연의 대기를 만들어 낸다. 예리하면서도 동시에 따스한 감성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김혜나 작가의 작품 안에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 회상케 되는 작가의 옛 기억들이 층을 지어 담겨져 있다.

작가는 자연에서의 반복적인 경험을 작업실로 고스란히 가져온다. 따스하고 고요한 자연광이 가득한 작업실은 마치 하얀 대기가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그곳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서의 경험과 그 안에서 떠오른 추억들을 회고하며 작업한다. 겹겹이 쌓여 있는 색색의 붓질들은 풍경에 대한 시각적 전달을 넘어서 대기가 전달하는 오감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그래서인지 김혜나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시각적 언어로 고정된 풍경이 아닌, 다양한 의미로 변형 가능한 추상적 풍경이 느껴진다. 다소 흐릿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작품은 색이 칠해지고 더해지면서 그 화면 자체가 자연스럽다. 마치 대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감각들처럼 김혜나의 작품은 평면회화를 뛰어넘어 보는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는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을 만들어낸다.

김혜나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자연과 일상, 그리고 내면의 풍경들을 표현한 작업들로 인해 관객이 오감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 역시 김리아갤러리 청담점은 1 층 전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공간과 같은 3 층 일부를 김혜나 작가의 개인전 공간으로 관람객에게 열어둔다. 경직된 전시장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 예술을 접목해 좀 더 자연스러운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볼 기회가 될 것이다.

ARTIST

김혜나 (金慧娜 / Kim, Hye Na)

1981 년생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2003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Solo Exhibition

2015 White atmosphere, 김리아갤러리, 서울

2014 물사람, 갤러리 보는, 서울

2013 <6>, 자하미술관, 서울

2011 Yes, You did it, 갤러리 2, 서울

2010 캔버스 인형놀이, OCI 미술관, 서울

2009 내가 했던 것들, 갤러리 2, 서울

2007 HOW UGLY THEY ARE!, 대안공간 루프, 서울

FORGET IT, 갤러리 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2006 김혜나, 인사미술공간, 서울

Group Exhibition

2015 blue, salon de H, 서울

육감, OCI 미술관, 서울

헬싱키물산,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오늘의 살롱, COMMON CENTER, 서울

2013 공존의 방법, 샘표스페이스, 이천

샘표 갤러리 프로젝트, 우리발효연구중심 센터, 충북 오송

2012 스테잉 얼라이브,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 서울

2011 충동, 보안여관, 서울

Wall painting project, MK2 Art Space, 베이징, 중국

2010 신진기예, 토탈미술관, 서울

As If You Know, 안도파인아트, 베를린, 독일

2009 원더풀 픽처스, 일민미술관, 서울

더블 판타지, 마루가메 겐이치로 이노쿠마 미술관, 오사카, 일본

2007 비주얼 사운드, 카이스 갤러리, 서울

막긋기, 소마 드로잉센터, 서울

2005 열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인사이드 아웃, 대안공간 루프, 서울

WORK IMAGE



Untitled

Oil on Canvas

162x130cm

2015



Foggy Blue

Oil on Canvas

162x130cm

2015



좌) **Night Forest** | Oil on Canvas_ 16x22.5cm_ 2015

우) **Hanabi** | Oil on Canvas_16x22.5cm_2015



Grass and Stone

Oil on Canvas

150x150cm

2015